

# 야말LNG, 최초 북극해 항로 통과...中 운송 중

### 북극해 항로 통과 시 소요기간 35일→15일로 단축 미쓰이·Cosco Shipping 동절기 수송방안 공동모색

야말 LNG 플랜트에서 생산된 LNG가 최초로 북극해 항로를 통과해 중국으로 운송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러시아 민간가스기업 노바텍(Novatek)은 '야말 LNG' 플랜트에서 생산된 LNG를 선적한 쇄빙 LNG 수송선 Vladimir Rusanov호(17만2000㎥급)가 6월 25일 사베타(Saibetta) 항을 출항, 최초로 북극해 항로를 통과해 중국 동부 장두(江都) 항으로 항해 중이라고 발표했다.

Vladimir Rusanov호는 일본 해운회사 미쓰이(Mitsui O.S.K. Lines)와 중국 해운회사 Cosco Shipping이 공동 소유한 3척의 쇄빙 LNG선 중 건조가 완료된 첫 번째 선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명명식을 갖고 인도됐으며 지난 3월 27일 야말 LNG 플랜트에서 첫 번째 LNG 카고를 선적했다.

야말 LNG 플랜트에서 생산된 LNG를 수송하는 Vladimir Rusanov호는 동절기에는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쪽 항로를 이용해 유럽으로 야말 LNG를 수송한 후 일반 LNG 수송선으로 환적했으나, 하절기에 들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북극해 항로를 거쳐 아시아 지역으로 운항 중이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운항하는 경로는 약 35일 소요되는 반면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는 경로는 약 15일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수송일수 단축과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북극해 항로는 동절기에는 운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러시아 북해 항로 관리국에 따르면, Vladimir Rusanov호는 7월 6일 러시아 축치(Chukchi) 반도에 있는 데주노프 곶(Cape

Dezhnev)을 통과, 7월 17일 중국 장두 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초 북극해 항로를 통과할 경우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박 추적시스템에 따르면 Vladimir Rusanov호의 실제 운항일수는 22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1일 서쪽 항로를 통해 벨기에 제브뤼헤(Zeebrugge) 항구에서 환적된 첫 번째 야말 LNG 1카고(17만㎥)를 중국 천진으로 인도받은 바 있다.

한편 Vladimir Rusanov호를 포함해 총 3척의 쇄빙 LNG선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미쓰이와 Cosco Shipping은 동절기에도 북극해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절기에는 주로 러시아 자국 내 LNG 카고를 운송할 때만 이용돼 온 북극해 항로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결빙층이 퇴각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동절기에도 쇄빙 LNG 수송선의 운항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광국 기자 kimgg@

## 美, '이란産 원유 수입 전면 중단' 요구 완화키로

### 국제 유가 상승 우려 등 작용

###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가 당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는 국가들과는 각국 입장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타임즈 등 외신은 브라이언 후크(Brian Hook)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등이 밝힌 바와 같다.

미 국무부는 동맹국들에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많은 인도와 한국, 터키 등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이란을 대체할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

반면 중국, 인도, 터키 등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대상국들은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또 미국의 이 같은 변화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는 대(對)이란 제재가 세계 원유 공급과 유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동 산유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사우디도 미국과 인식을 같이해 국제유가 상승 완화를 위해 200만b/d를 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는 200만b/d를 증산할 수 있는 공급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합의에 따른 증산이 즉각 이뤄질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혀 실제로 증산 계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조재학 기자 zjh@

## 美·中 무역분쟁으로 미국 석탄업계 수출 우려

### 중, 석탄·석유 등 에너지 제품 포함 659개 품목에 보복관세 부과

미국 석탄업계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향후 미국산 석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비롯한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국 석탄수출업체들은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 조치 발표 이후 원료탄 수출을 위한 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대미 보복관세를 발표하자 미국 석탄업계의 우려도 커졌다.

중국이 석탄, 석유, LPG 등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500억 달러 규모의 659개 미국산 수입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영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CNBM과 석탄 수출을 협의 중이던 미국 석탄수출업체들이 당장 논의에 지장을 받고 있다.

협에 참여하는 콘솔 에너지 사는 "연간 100만톤의 제철용 원료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CNBM과 협의중이었으나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다른 석탄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국 석탄 수입 기업들과 석탄 수출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조속히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석탄협회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바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제철용 원료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상공회의소는 "수출에 의존하는 다수의 석탄 기업들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이는 석탄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중국의 보복관세와 별개로 미국산 제철용 원료탄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수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미국산 석탄의 대아시아 수출은 2016년 1570만에서 지난해 3280만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예지 기자 kimyj@



포메이오 장관 "북한도 베트남 방식으로 성공 가능" 마이크 포메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법으로 베트남의 사례를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포메이오 장관은 미국-베트남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1995년 미국-베트남 관계 정상화 이후 베트남이 걸어 온 길은 수십 년에 걸친 미국과의 충돌 및 불신 이후에도 번영과 파트너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 2018 일본은 지금...

◆일본 정부 4년 만에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2030년도 주력 전원 신재생 발전비율 22~24%, 원전 발전비율 20~22%...가동 원전 30기까지 늘려야 할 듯 = 일본 정부가 지난 3일 4년 만에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개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2030년도 전원 구성에서 발전 비율을 22%~24%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일본은 2012년에 시작한 고정 가격 매입제도(FTT)가 도입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0년도에 약 10%에서 2016년도 약 15%까지 증가했다.

중요한 기저 전원이라 내세우는 원전의 비율은 20~22%로 명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기 정도의 원전 가동이 필요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에 제정된 신규제 기준에 기반해 현재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9기에 불과하다. 17기(건설 중인 3기 포함)의 원전이 앞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한 발전소는 간사이 전력의 다가마원전 1,2호기와 미하마원전 3호기(후쿠이현), 도쿄전력 홀딩스(HD)의 가시와자카카리원전 6,7호기(니가타)가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취임한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오 지사가 재가동에 신중한 모습으로, 재가동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노후화로 안전대책비용이 크게 늘어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잇따르고 있다. 폐로가 결정되거나 폐로 작업 중인 원전은 18기에 달한다. 더욱이 6월에는 도쿄전력HD의 고비야카와 토모야키 사장이 후쿠시마 제2원전(후쿠시마현)의 전 4기의 폐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를 포함하면 폐로 원전은 22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가동을 위해선 사법부의 문턱도 남아 있다. 전국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동의라는 1차 허들을 넘어야 하며 이에 더해 원전 가동이 사법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사법 리스크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도	원전 에너지정책 추이 (출처: 에너지 신보)
2010년 6월	(제4차 에너지 기본 계획) 2030년도까지 원전비율 약 50%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2012년 9월	핵심적 에너지 원전전략, 2030년도 원전가동 목표, 가동40년에 목표, 신재생률 20% 이상
2012년 12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년 4월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 원전은 '중요한 기저 전원', 핵연료 사이클, 원전 수출 추진, 신재생률 20% 이상
2015년 11월	파리협정 발표
2018년 7월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 원전은 '중요한 기저 전원', 신재생률 22% 이상, 핵연료 사이클, 원전 수출 추진, 신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日,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 첫 명사는 일본 정부가 최근 개정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사용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보유량을 삭감한다고 처음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4년 만에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47t으로, 원자폭탄 6000발을 제작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인정되는 일본은 플루토늄을 플루루시멀로 관리·이용하는 계획 및 설명이 없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온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플루토늄을 감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에선 국제 정세상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에 플루토늄 보유량 삭감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사는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제5차) 플루토늄 감축에 착수한다는 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면서 "이는 평화적인 이용을 전제로, 핵 비확산에 기여해 국제적인 이해를 얻는 동시에 핵연료 사이클을 성실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NGLISH** 영국 미국 말문을 여는 스토리로 배우는 영어회화!

Lesson 57 Emergency (10)

**A : What happened? This place is a mess.** (어떻게 된 거야? 집이 엉망이야.)  
**B : It just needs a little cleaning up.** (청소만 좀 하면 돼.)  
**A : I can't believe this!** (믿어지지 않아.)  
**There's no food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  
**B : We can go out and get a sandwich...** (나가서 샌드위치 하나 사먹으면 돼.)  
**A : That's not my point!** (내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What were you and Dad doing for food?** (너랑 아빠 뭐 해먹고 산거야?)  
**B : He didn't want much food, and he wasn't feeling well...** (아빠 많이 안 드셨어.)  
**A : When did that start?** (그건 언제부터 그랬니?)  
**B : A while ago.** (한참 전에...)  
**A : Why didn't you call me?** (왜 전화 안했니?)  
**What was going on here?**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B : Don't blame me. At least I was here.** (날 비난하지 마. 적어도 난 여기 있었어.)

**[Key Point]** \* That's not my point!  
 내말은 그게 아니잖아! 로 해석할 순 있지만 해석까지만 하고 멈추면 외국어를 아직 배우는데 부족한 거죠. 표현은 해석보다 어떤 상황에 어떤 뉘앙스 차이로 쓰이는지 유심한 관찰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알아두고 회의 때 사용해 보세요. That's the point. 바로 그 얘기입니다.  
 Now you are on to something. 이제 제대로 파악했구나. 같은 표현으로, You are getting on to it. 반대로, You are getting off the point. 네 말은 주제를 벗어난 것 같다.

**[주요 표현]** \*What happened?  
 결과를 묻는 말이 아니라 눈에 펼쳐진 상황을 일으킨 원인을 묻는다.  
 부서진 차를 보고, What happened to your car?  
 다른 여자랑 들어서는 친구에게, What happened to your girlfriend?  
 This place is a mess.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mess 로 부른다.  
 Who left this mess? 누가 안치우고 간거야?  
 Sorry for the mess. 집이 좀 어수선 하죠?  
 It just needs a little cleaning up. It just needs a little ~ing ~만 좀 하면 돼.  
 What were you and Dad doing for....? ~는 어떻게 해결해 온 거야?

(자료 제공 : 문영미 시스스피킹(www.sisaspeaking.com))